

광주시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개막

11일까지 3일간 DJ센터서 열려 에너지 기술·환경제품 등 선배 구매 상담·수출상담회 등 진행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

광주광역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이 9일 개막,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막행사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우 영산강 유역환경청장, 곽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밸리 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밸리산단 등 인공 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이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한전KPS, HD현대삼호 등 대·중 소기업 코너에서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개막식은 강 시장의 환영사, 점등식, 전 시장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친기

술 △자원순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12개 분야 2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 보호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상담회인 '동반성장페어'는 대기

업 80여개사, 중소기업 150여개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 사례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참가기업

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또 전시장 내 스튜디오를 조성해 참가기업들에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수출플랫폼에서 상품등록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시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설명회, RE100 이행전략 세미나 등 정책과 산업을 잇는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도 잇따라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매력은 시민 체험형 행사인 '넷-제로 마켓(Net-Zero Market)'이다. 기업과 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관람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강 시장은 "환경·에너지 분야 논의의 장인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이 미래 에너지 보고가 될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풍부한 에너지에 기반해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ja.jeong@jinilbo.com

광주시, DJ센터에 '인베스트 라운지' 개설

투자자에 업무·휴식공간 제공 '전략산업 소개·브랜드 홍보'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 '인베스트 광주 라운지 : Invest GwangJu Lounge'를 새롭게 조성,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에 들어갔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베스트 광주 라운지(IGL)'는 광주경제자유구역 브랜드를 홍보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쾌적한 비즈니스 상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형 라운지로, 업무공간 21㎡, 휴식공간 18㎡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정상이 기자

특히 소규모 미팅룸, 개인 업무공간 등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기획행사)산업 관계자와 광주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의 전략산업과 기업 투자환경을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도 "인베스트 광주 라운지는 광주의 산업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도시임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시동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세부 연출·효율적 인력 운영 논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사무국은 지난 8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기본계획 착수와 함께 박람회 주요 방향을 정하고 차별화된 미식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남호정

전남대 교수,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 이현업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 등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람회장 조감도와 세부 실행 계획 △주제전시관, 미식문화관, 케이푸드(K-Food)기업관 등 세부 연출 방향 △패러럴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 계획 △안전관리 계획과 교통 운영 방안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유현호 전남도관광체육국장은 "착수보

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만큼 사무국을 중심으로 대행사, 감독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미식의 가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승인된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행사로서,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노후주택 화재예방 긴급 점검·지원

복지기동대-소방본부 합동

전라남도는 최근 부산에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복지기동대와 전남소방본부 합동으로 노후주택 긴급 화재예방 점검 및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월6일까지 2개월간 5000 가구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후 콘센트 교체 △노후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점검과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화재 위험이 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119 생활안전순

찰대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함께 화재 취약가구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화재 취약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전남도지사는 "부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경고음"이라며 "화재 예방과 주거 안전 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22개 시군, 297개 모든 읍면동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전남 전체 가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22만 5000여 가구를 지원하며 지역 복지안전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잔걸음

입지 적합성·부처 정책 연계 3대 과업 중심 로드맵 마련

전라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센터 유치 및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범국가적 전문기관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전남의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여건·경쟁력 분석 △센터 설립에 따른 관련 업종 영향력·경제적 파급력 분석 △범국가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 총 3대 과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남의 입지적 강점과 수산업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남 지역 설립의 당위성과 입지의 적합성도 도

출하고, 중앙부처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향과 맞물려 추진됐다.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및 유치를 통해 도 차원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등 기후에너지부와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도시공사, 골프장 이용객 지역화폐 환급

광주도시공사는 7월부터 6개월간 빛고을골프장과 상무골프연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환급 행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빛고을골프장과 상무골프연습

장 이용 고객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빛고을골프장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 또는 1만원이 환급된다.

또 빛고을골프연습장과 상무골프연습장에서 장기 이용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이용권 종류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만 5000원, 또는 광주상생카드 5만원, 10만

원이 지급된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